

배움에는 끝이 없기에 늘 부족함을 인지하고  
배워가는 웹 퍼블리셔가 되겠습니다



## 박 푸름 (Park Purum)

1991.09.11 (만 31살)  
경기도 구리시  
010-6274-2679

rumrum911@naver.com

### 학력

2010.03. - 2015.02. 동두천 신한대학교 중국어학과 (3.53/4.5)  
2007.03. - 2010.02. 의정부 송현고등학교

### 경력

2019.10. - 2021.10. KBS미디어 (인터넷서비스부 팀원) 연봉 2400만원  
KBS 콘텐츠 등록 및 야간 운영관리

2018.06. - 2019.09. 스튜디오zip 연봉 2200만원  
인테리어 사진 보정 (잡지사와 가구회사에 납품하는 사진)

2015.03. - 2017.02. 신한대학교 (교양학부지원팀 팀원 및 조교) 연봉 1800만원  
교양학부 교강사 관리 및 교양학부 행정보조

### 자격증

2023.04. 웹디자인기능사 실기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08. 2종보통운전면허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2013.03. 한자급수자격검정3급 (대한검정회)

### 어학

중국어 회화 능력 : 일상회화 가능

### 어학연수

2013.02. - 2013.07. 중국 칭따오  
청도대학교 현지학기제 : 현지에서 타국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 중국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2012.06. - 2012.07. 중국 칭따오  
청도대학교 어학연수 : 어학당 상급반으로 듣기능력 향상

## 자기소개서

### 성장 과정

#### [배움을통해성장하는사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부가 제일 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일을하면서 알려주시는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법을 배웠고 취직하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리터쳐 일을 할 때 중간에 회사가 영상을 촬영 할 일이 생기면서 영상 작업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 편집할 일은 없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며 언제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모르는 부분은 여쭙가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보정을 할 때 마다 계속 변화된 모습에 칭찬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찾아서 하는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의 일도 항상 추세를 쫓고 계속 배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배움의 자세를 놓지 않으며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성격의 장단점

#### [성실함이몸에배어있는사람]

저의 가장 큰 무기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교로 일 할 당시 1교시 수업이 있는 교수님들을 위해 언제나 10분씩 일찍와서 커피를 내리거나 컴퓨터를 켜놓는 등의 일을했습니다. 물론 큰 일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일에도 성실히 임함으로써 많은 교수님께서 1교시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언제나 그런 저의 성실함에 “어디서 무슨 일 하든 잘 해낼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 [생각이많은결정장애]

저의 단점은 생각이 많다는 점 입니다. 크게 결정 할 일이 있을 때 마다 저는 친구들의 조언을 듣는 편입니다. 조언을 들으면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 조언으로 인해 조금 더 제 생각이 맞거나 틀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조금씩 생각을 정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결정할 때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에 어느 유튜버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한 것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로 무한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라. 직접 겪으면서 부딪혀라.’ 저는 아직도 생각이 많고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그것이 꼭 나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조금 신중하고 사람들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기소개서

### 학력 및 경력사항

조교로 일 할 때 학과의 홈페이지를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홈페이지는 게시물을 오직 글자만 올릴 수 있어서 이미지를 올리려면 태그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html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태그 사용법을 배워 학과의 교수님들과 조교들의 사진과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다른 과는 홈페이지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장님께서도 매우 흡족해하셨고 저 또한 수동적으로 한 일이었지만 해냈다는 뿌듯함을 얻었습니다. 조교라는 직업은 학생과 학교 사이에 소통창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학교에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 조교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무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강신청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듣고싶어 하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부장님께 말씀드리어서 해결책을 만들었고 다음 학기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 지원동기 및 포부

#### [하루하루 성장하는]

머물지 않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국비 지원으로 웹디자이너 및 웹 퍼블리셔가 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디자인과 코딩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내가 코딩을 할 수 있을까?”였지만 흰 페이지에 글자가 나타나고 색이 바뀌고 배우면 배울수록 다양해지는 이 공간에서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비록 들어가자마자 잘하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보듬어주시고 틀리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부족한 점을 더 공부하여 귀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